

2021.04

봄
제27호

날으는 홍범도장군

www.hongbumdo.com | 발행인 우원식 | 편집인 홍순계 | 창간 2014년 8월 15일



부인 '단양이씨' 장남 '홍양순' 건국훈장 수여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영웅호걸이라도
실끝 같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뿐인 것이다.
내가 만일 글을 너희들 시키는 대로 쓴다고 하여도
영웅호걸인 그는 아니 들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말하지 말고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여라”

- 홍범도 일지 중에서



우원식 이사장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이사장 우원식입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강국과 경제 모범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도 국난에 맞서는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념사업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제102주년 3.1절 독립유공자 포상에 홍범도 장군의 부인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이 포함되었습니다.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대통령께 직접 단양이씨의 훈장을 대리 수상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홍범도장군의 부인 단양이씨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일제의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 장군을 잡기 위해 부인을 잡아가 모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은 부인 소식에 애간장이 끊어졌던 홍 장군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도 저려옵니다. 큰아들 홍양순 선생 역시 아버지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 전선에서 20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간 생존한 유족이 없어 흥 장군 가족의 독립운동사가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기념사업회가 주도해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부인과 두 아들의 서훈을 신청하면서 이번 포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빈농 출신의 홍범도 장군 일가야말로 독립운동 명가로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 포상에 빠진 차남 홍용환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여 광복절에는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홍장군과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무명 독립군 전사들의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변함없이 기념사업회와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의 완전 종식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3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인사

부인 '단양이씨' 장남 '홍양순' 건국훈장 수여

부인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에게 3.1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은 물론 부인 단양이씨, 장남 용순, 차남 용환도 독립 전선 제단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후손이 없는 관계로 3.1절 기념식에서 단양이씨의 훈장은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장남 용순의 훈장은 홍범도함 여명훈 중위가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차남 용환은 심사과정에서 포상이 보류되어 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 보훈처에 재신청을 완료해서 오는 8.15일 광복절 서훈 예정입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는 25일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아들과 부인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훈장은 오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이사장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인정받게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8월 부인과 두 아들의 서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번 포상자에는 차남 홍용환 선생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중략)

이번 포상에 빠졌지만 차남 홍용환 선생 역시 1919년 북만주에서 200명 규모의 독립군 부대 대장으로 일본군과 술한 교전을 벌였다. 1921년 8월 1일 조직된 380명 규모의 대한독립군 결사대의 한 부대의 대장이었고, 1926년 4월 29일 조성환, 정신, 김좌진 등 신민부 간부 20명이 북만주 영안현에서 조직한 '연합총의결사대'의 제2대장에 선임되었다는 일제 측 첩보기록

도 남아 있다. 평생을 일본군과 전투에 바친 **홍용환** 선생의 말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우원식 이사장은 “빈농 출신의 **홍범도** 장군 일가야말로 독립운동 명가로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수** 선생의 포상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차남 **홍용환**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 재심사 청구하여 올해 광복절에는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념사업회 보도자료 중에서 (2월 25일)



표지 사진 _ 건국훈장 애국장과
3.1절 기념식에서 훈장 수여 후
문재인 대통령과 우원식 이사장



홍 장군의 부인 단양이씨는 1908년 3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남편의 의병 활동을 빌미로 일경에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1958년 『홍범도 일지』를 필사했던 이인섭 선생의 자료(『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3권』, 2011년)에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1906년 2월 18일이였다. 우리 의병대는 용문동에 들어가서 류하게 되었다. 이때에 더덩장 거리에 적들이 당도하여서 홍범도 한테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고 위협하였으나 홍범도 장군은 귀순하라는 편지를 가지

고 오는 놈 7~8명을 처단하면서 강경히 항의하였고 나중에는 기묘한 수단으로 놈들을 기만하여서 섬멸하였다. 이 사변 시에 그의 부인 단양이씨는 적에게 잡혀서 비인간적 악행을 당하다 못하여서 자기 혀를 자기 이빨로 끊으면서 군대 비밀을 누설치 아니하였다. (중략)

내 부인은 악행을 당하다 못하여서 죽으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즉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영웅호걸이라도 실 끝 같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뿐인 것이다. 내가 만일 글을 너희들 시키는 대로 쓴다고 하여도 영웅호걸인 그는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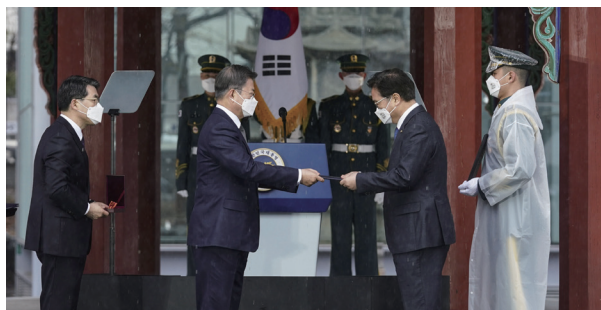
들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말하지 말고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여라” 하였다. (중략)

“그러니 저 악독한 놈들은 나의 처발가락 두 사이에다가 심지를 끼워 놓고서 불을 달아 놓는 등 별별 악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내 부인은 절반 죽게 되니 혀를 끊어 병어리가 되면서도 변절치 아니하고 조국을 위하여 보통 인민을 위하여 원한에 세상을 떠났다.”

■ 중앙일보 (2021년 2월 25일) 보도자료 중에서

홍 장군의 장남 홍양순 선생은 1907년 북청에서 홍범도 의병부대에 들어가 이듬해 함남 정평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순국했다. 『홍범도 일지』 필사본에는 홍 장군이 당시 상황을 그린 대목이 나온다.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병과 싸하여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거차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되기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숨진 홍범도 장군은 1963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하지만 그간 홍 장군 가족의 독립운동사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유족의 신청이 원칙인데, 먼 이국땅에 사는 유족들이 벌써 3대가 넘어가다 보니 신청 건수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 자료 등을 토대로 발굴 작업한 결과가 이번 포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의병 활동을 하다가 1920년대 후반에 병사한 차남 홍용환 선생은 이번 포상 대상에서 빠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심사를 했지만, 자료가 미비해 포상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홍 장군 유해 봉환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처음 추진됐으나, 현지 동포들이 ‘카자흐스탄 동포들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보존을 희망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묘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해 봉환 재추진 분위기가 형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유해 봉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회계보고

1. 전년도 이월 _ 12,909,420원

2. 수입		3.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이사회비	39,000,000	1.운영비	14,975,220
2. 후원금	11,820,000	2.인건비	19,149,690
3. CMS후원	21,290,960	3.금융수수료	1,155,733
4. 일자리지원	1,020,000	4.소식지	14,827,650
5. 기타(이자)	61,281	5.보조사업	20,838,380
		6.경조사비	752,500
		7.식대	1,063,140
		8.기타	5,000,500
계	73,192,241	합계	77,762,813

4.21년도 이월 _ 8,338,848원

2020년 사업보고

정부 보조 사업

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식

- 시기 _ 2020년 6월 7일(일) 10:00
- 장소 _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 의장대 퍼포먼스, 이사장 기념사, 총리 축하 기념공연(하현우 + 연합 합창단)



홍범도장군 네이밍 디자인 공모전

- 시기 _ 8/27~9/28일, ‘쌍국’통해 공모
- 총 210편 작품 응모
- 보훈처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8명 시상



77주기 추모식

- 시기 _ 10월 23일 13시 서울현충원 총열대
- 기념사(이사장), 축하(박병석의장), 헌시(이동순)
- 네이밍 공모전 시상



KBS 다큐멘터리



KBS 다큐멘터리 '민족영웅 홍범도'

- 시기 _ 10월 24일 21:40~22:40분 1시간 방영
- 23일 KBS 9시 뉴스 미공개 영상 공개
- 최수종, 진중오, 반병률, 이상훈 교수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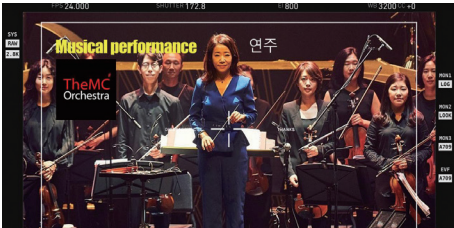
학술제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학술제

- 시기 _ 11월 6일 14:00~18: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_ 홍범도 장군과 1920년 독립전쟁
- 영상 녹화, 유튜브 업로드

디지털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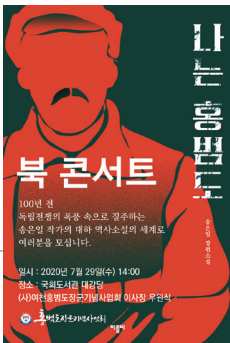
'날으는 홍범도가' 뮤직비디오

- '날으는 홍범도가'를 뮤직비디오 제작
- 향후 주요행사에 사용 및 국민 보급
- 음악감독: 김문정, 제작감독: 김희재 노래: 고영열

자체사업

소설 '나는 홍범도' 출간

- 7월 10일 소설 '나는 홍범도'출간(송은일)
- 7월 29일 북콘서트 (국회 도서관)
- 10월 14일 육군사관학교 북콘서트
- 11월 11일 간호사관학교 북콘서트



소식지 '날으는 홍범도 장군' 발간

- 봄호: 6월 4일(2,000부, 정부 보조금 제작)
- 여름호: 8월 20일(1,000부)
- 가을겨울 통합호: 12월 23일(1,000부)



학술제 자료집

-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홍범도 장군과 1920년 독립전쟁> 500부



가족 서훈 신청

가족 서훈 신청

- 2020년 8월 가족 서훈 신청
- 2021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서훈 수여 부인 '단양이씨': 우원식 이사장 수여
- 장남 '홍양순': 홍범도함 여명훈 중위 수여
- 차남 옹환은 자료미비로 보류, 재신청(광복절 발표예정)

2021년 사업 계획

국가보훈처 보조사업

예산 _ 4억 3,750만원

(국가 보조금 3억 5천만원, 자부담금 8,750만원)

학술대회

일자 _ 2021년 10월 22일 (금) 14:00~18:00

장소 _ 백범기념관 (또는 축제장 인근 강당 등)

주제 _ 미정 (1921년 독립운동)

행사 취지 _ 독립운동사에서 최대 비극인 '자유시 참변' 등 1921년 독립운동사 주요쟁점 연구, 토론

독립전쟁 전승 기념식 (독립전쟁전승기념축제 개막식)

일자 _ 봉오동전투 2021년 6월 7일(월)

청산리전투 10월 21~26일 중

장소 _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곳

(효창공원, 용산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행사 취지 _ 독립군의 빛나는 항일전쟁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 독립전쟁의 승리를 기념

홍범도 역사탐험대

일자 _ 2021년 3월 ~ 11월

장소 _ 남산 국치길,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지, 봉오동 전투현장 등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기념관 등 역사탐방

행사 취지 _ 의병운동, 독립운동 유적지, 기념관 등 국내·외 유적지 탐방

'독립전쟁 전승 기념축제' 기간중에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

홍범도 캠프

일자 _ 2021년 4월 ~ 11월

장소 _ 백범 기념관 (용산공원, 효창공원)

행사 취지 _ 구한말 ~ 해방까지 항일 독립 투쟁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독립전쟁 전승 기념축제' 기간중에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

제1회 독립전쟁 전승 기념 축제

일자 _ 10월 22~23일

장소 _ 용산구 효창공원 (용산공원)

행사 취지 _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당시 세계 최강 일본군을 패퇴시킨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독립군의 승리를 기념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오늘에 기리는 기념 축제로 진행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일자 _ 10월 22~23일(축제 기간 전후)

- 유해봉환 성사시는 유해봉환에 맞추어

참석 대상 _ 중·고·대학부 각 40명씩 총 120명 초청 경기

행사 내용 _ 포수 출신 명사수 의병장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격대회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일자 _ 6월 7일 봉오동 전투 기념일~9월 30일 공모

10월 심사, 전승기념축제 기간 중 시상식

응모 대상 _ 중·고·대학부, 일반 국민 대상

행사 내용 _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을 문학작품으로 출간한 '소설 나는 홍범도' _ 학생부, 일반부 대상 독후감 공모전

자체 사업

홍범도 산악회 (홍범도 어벤저스)

구성 _ 기념사업회 회원 및 역사에 관심 많은 국민 참여

장소 _ 국내외 주요 항일 유적지 중심
2021년 6월 봉오동(해외) 탐방

홍범도 아카데미

취지 _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실
(독립전쟁사 중심, 올바른 역사 세우기)

진행 _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또는 대중적 관심 주제 선정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

-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우당기념관 -

정이숙 카피라이터

우당 이회영 기념관은 전국 57개의 독립운동 기념관 중 유일하게 개인이 건립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우당의 손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자택을 내놓아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지도에서 우당기념관을 찾아보았다. 경북공역에서 가깝다. 기념관 홈페이지는 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만약 직접 간다면 천천히 걸어서 가고 싶다. 통인시장에 들러 기름떡볶이를 먹고, 낮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정겨운 효자동의 한가한 정취를 숨쉬며 가고 싶다.

우당 이회영(友堂 李會榮)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독립운동가이다. 선생은 세상을 보는 선각자적인 안목이 뛰어났다. 약관 20세부터 신지식을 받아들여 봉건적 인습과 사상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고 온 몸을 던져 자신의 생각을 실천한 분이다. 선생의 가문은 '삼한갑족'이라고 불리는 손꼽히는 조선조의 명문가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냈고 10대조는 임진왜란 이래 다섯 번의 병조판서, 세 번의 좌우정승과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이다. 백사 이래 이유승(李裕承)에 이르기까지 9대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승, 판서, 참판을 지냈다.

우당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실패 후 국외에 독립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1910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여섯 형제와 50여 명의 일가족 전체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800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니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진정한 실천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이회영 선생은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 특사' '신흥무관학교' '고종의 국외망명' '의열단' 등 국외 항일운동의 전반에 관여하였다.

이회영 선생은 1932년 만주에 연락근거지를 확보하고 지하공작망을 조직할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다롄으로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일본경찰에 붙들려 다롄경찰서에서 심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참으로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다.



우당기념관 현황

위 치 _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재산권자 _ 이종찬(전 국정원장, 우당 선생 손자)

관리주체 _ (사)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설립목적 _ 우당 선생과 그 동지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전시

_ 우당 선생 재조명 사업 추진

설립일자 _ 1990년 9월 1일(종로구 동숭동)

2001년 6월 15일 현 위치로 이전

현충시설 지정 _ 국가보훈처에서 2003년 1월 17일 지정



망명을 논의하는 6형제



망명 직전의 우당

우당 기념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우당의 흉상이 우리를 반긴다. 파란만장한 선생의 연보를 읽으며 걸음을 옮기면 주요 애국지사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동녕, 김동삼, 변영태, 이상설, 전덕기, 양기탁... 대부분은 들어본 기억도 없는 분들이라 죄스러운 마음 씻을 수 없다. 기념관에서는 김구 선생이 우당의 만며느리인 조계진 여사에게 준 백범일지, 우당의 아내 이은숙 여사의 육필수기도 만날 수 있다. 우당 선생이 받은 건국 공로 훈장, 한국인 중 중국 정부로 받은 유일한 훈장이라는 우당 선생 혁명열사증명서도 전시되어 있다. 선생이 직접 조각하신 도장과 낙관, 직접 그린 묵란도 전시되어 있다니 꼭 가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쌀이 없어 밥을 못 짓고 밤이 되었다. 때마침 보름달이 중천에 떴는데, 아버님께서는 시장하실 텐데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셨는지 처량하게 통소를 부셨다. 하도 처량하여 눈물이 저절로 난다며 통소를 부시니 사방은 고요하고 달빛은 찬란한데 밥을 못 먹어서 배는 고프고 이런 처참한 광경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당 선생의 아들 이규창의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재벌 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 정작 우당 선생과 식구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허다했다고 한다.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공원에 나가 바람이라도 쏘이자는 친구의 청을 거절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애국지사를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일제에 붙어 부귀영화를 누리던 친일파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궁핍함과 청렴함이다.

선생의 마지막을 상상해 본다. 대련 수감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신 날이 11월 17일이라고 한다. 67세의 노인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무엇보다 일제의 패망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얼마나 원통하셨을까? 교도소로 찾아가던 당시 22살의 따님이 선생의 시신을 살폈는데 차마 눈을 감지 못 하고 계셨단다. 부인의 수기에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옷을 입으신 채로 이불에 싸서 관에 모셨으나 눈을 차마 감지 못하시고 뜨신 걸 뵈고 너무나 슬픔이 벅차서 기가 막히네, 형사들은 재촉을 하고 저 혼자선 도리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유해를 모시고 신경(장춘)으로 왔으니 슬프도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 그치지 않고, 마스크를 벗지 못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봄인데 봄이 아닌 듯 마음은 춥고 스산한데 창 밖엔 벌써 목련이 꽃봉오리를 활짝 열고 있다. 나무는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겨울 내내 꽃을 피울 준비를 했던 것이다. 독립을 믿었던 우당 선생과 그 가족들처럼! 선생의 송고한 희생에 마음 속으로 꽃 한송이를 바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신임 이사 인터뷰



이명우 이사

안녕하세요. 홍범도기념사업회 신임이사 이명우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남지사(정무직 차관급)직입니다.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북5도지사의 주요 관장업무입니다. 이외에 이북도민사회 각종 단체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업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북도민사회에 전파 및 교육, 이북5도 향토문화 및 예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계승발전시키는 일 등이 이북 5도 지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제가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에 회원 겸 이사를 맡게 된 이유는 여천 홍범도장군이 제가 관할하는 평안남도 평양시 출신이십니다. 우리 고향 출신의 독립군 대장이십니다. 그런 연고로 평남도지사인 저는 홍범도장군을 고향 선대 어른신으로 자랑스런스럽게 생각하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180만 평남 이북도민 모두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2020년도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20년대 홍범도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전투 상황과 독립군 운동사에 대한 사진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진전시회와 함께 사진도록을 [독립전쟁 그 현장을 가다] 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런 행사와 사진도록 발간으로 홍범도장군에 대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홍범도장군의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와 연고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소개와 아울러 제가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신임이사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예진 이사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여러분과 함께 활동할 채예진입니다.

카자흐스탄 AI-Farabi 국립대 신문방송과 졸업, 카자흐스탄 국영 방송사 기자, 아나운서, PD 경력10년, 한국 무역업체 근무경력 12년을 바탕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법인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CIS 지역에서의 동포(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한국에서의 고려인에 대한 인식을 재고 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한고려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 출신이 갖기 쉬운 편향된 시각을 경계하며 다양한 사회적 해석을 이해 할 수 있는 해안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먼 후에 누군가의 운명 꽃이 피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문 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초중고를 서울에서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성남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여러 동지들과 일터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미력하나마 참여해 왔습니다.

1990년 이후 전자기기회사인 명인전자와 미디어사업체인 ㈜아이디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여 경영하였으며,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성남문화재단 이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꾸준히 행하여 왔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에 경영부사장으로 부임하여 글로벌 10대 전시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제 하 망한 나라의 민초들이 이뤄낸 큰승리 '영하 봉오동전투'의 여운이 벅찬 가운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몇몇 선배 이사님들의 추천으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소개와 아울러 제가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신임이사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역사와 미래 탐사대’ 함께 하세요!



기념사업회의 ‘역사와 미래 탐사대’가 첫 탐사로 우이동 독립운동 유적지와 ‘근현대사 기념관’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25명의 회원 중 12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봄비에도 불구하고 반병률 교수(외대 사학과)의 열정적이고 입체적 설명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탐사대는 앞으로 봉오동·청산리 등 국내·외의 독립전쟁 유적지를 탐사하고 청년들의 호연지기를 함양시키는 스카우트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와 미래 탐사대’는 기념사업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신입회원 추천도 가능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추억

내 나이 5살

때쯤인 것으로 기억된다. 친구들과하고 밖에서 놀

다가 할머니의 "밥 먹자"라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

들어가지마자 좀 전에 찐 밥 냄새가 제 코를 간지럽게 했고 갑자기 배가 고

파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해 주신 가지미 구이와 찹쌀로 만든 밥이 젤 맛있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우리 식구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 내려놓으신 순

간에 우리도 식사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때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밥을 먹기 시작 할 수 없는 게 불만이었다.

그때는 몰랐던 일이 있었다. 빨리 밥을 먹지 못한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속도를 일부러 늦추셨다는 것을 한

참 나중에 알게 되었다 .

늦가을이다.

온 집안에 이 지독한 냄새. 할머니가 주방에 벽돌같이 생긴 메주를 걸어 놓으셨다. 어린 나에게 젤 싫은 냄새다. 우리는 항상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재래식 된장. 간장 먹었다. 어릴 때부터 그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랜 동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간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친척들이 몰려온다. 축제 분위기로 우리도 즐겁지만 한다. 사촌 동생들 하고 마음껏 놀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완전 자유다. 주방에서 엄마가 돼지고기를 삶고 있다. 마당에서 할머니들이 순대를 만들고 있다. 밖에서 찰떡 치는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는 또 뭔가 마음에 안 드신 눈치다. 떡 치는 궁합이 안 맞는 데다가 힘없이 친다. 완벽주의자 우리 할아버지의 눈빛이 만만치 않다. 할아버지가 짜증 내시고 삼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야단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웃겼다. 중학교까지 우리 민족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고있는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집이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이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한국과 CIS국가들간에 외교 관계가 시작됐다. 1992년.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가 착륙 시작할 때부터 작은 비행기 창문에 보이는 것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신 내가 왔다.

그 첫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제일 행복한 추억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말을 못해서 놀림도 받았다. "한민족인데 왜 우리 말을 못하냐"고 여러 번 들었다. 그때는 부끄럽기만 하고 아무 말을 못했다.

이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연해주. 독립 운동가들과 부대원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동포들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계속 러시아

땅에 살아야하게 되었다. 1937년. 스탈린 강제 이주로 수십만 명 우리 민족 사람들이 낯선 땅으로 끌려 갔다. 우

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포함이었다. 살아 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아주 큰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서야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그전에

는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못 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

리 민족의 아픔이고 슬픔이었다.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연회비 입금현황 (2021년 1월~3월, 납부일 순)

최윤 최익훈 이경철 홍성중 채예진 부윤경 이명우 조승문 조태수 홍이표 홍순계 김수승

CMS회원 회비 입금현황 (2021년 1월~3월 가나다 순)

(사)한국마트협회 JIN CHUNXING 강도연 강미혜 강태영 고형우 구자룡 권석중 권수정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 김미자 김민경 김사업 김상우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수오 김신애 김양미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재현 김정식 김준수 김준영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나명현 나홍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규만 박기호A 박기호B 박도산 박선원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배규식 배영실 백장현 서민 서양원 석진경 석해경 설정선 손여록 손현상 송정화 신선준 신승관 신원철 신재면 심상걸 안상환 안선종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윤여각 윤진희 이명수 이병국 이상진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우엽 이원규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련 이지선 이태준 이태훈 이행란 이현주 임현문 장승희 전광출 전성배 전중선 전현범 전홍기 정동준 정두영 정병호 정성관 정용운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현석 제성수 제용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욱 조영익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채인묵 천상영 최성우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동진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선익 황중섭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 전 서울중구청장)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무총장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강호형((주)KC COTTRELL 감사)
 김수승(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우진(K잡스 대표이사)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 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현권(전 국회의원)
 김현정(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노정래(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문현군(한국노총부위원장)
 박드미트리(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완주(국회의원)
 서경석(현대건설 부사장)
 손광춘(건축업)
 안태호(한국전기감리협회 부회장)
 위성곤(국회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승중(네무스텍 대표)
 임태성((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홍성덕(전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의락(전 국회의원)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신임이사 이명우(평안남도 지사)
 채예진(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김경호(대구광역시 자문대사/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진형((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태원(NH 증권 부사장)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국회의원)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박대봉(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 주식회사)
 박석봉(육사 교수)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양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유 용(서울시의원)
 이경철(노원구의회 의장)
 이미자(전 종로구의원)
 이재호(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정광균((주)미르나인 대표)
 정보현(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제종길((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최 윤(E3플랜비 대표이사)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왕기(제40대 평창군수)
 홍성중(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이표(하이리빙 대표)
 홍중표(강동수산 대표이사)
 조승문(킨텍스 부사장)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회원가입 : 김현식 사무국장(02-784-3601)



회원가입